

이기는 삶

대화 예절



대화에도 예절이 있다. 뒷사람에 대하여 존댓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나보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네 말은 틀려.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후자처럼 자기 확신에 찬 말은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상대의 기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대화 시에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언행은 오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큰 목소리일 수도 있고, 과격한 몸짓이나 자주 사용하는 언어일 수도 있다.

“사실상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와 같은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

에서 좋은 의도로 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나는 이만큼 똑똑해”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대화의 흐름에서 꼭 정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음이 높아지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을 지적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 상대방을 당혹하게 만든다. 토론 등을 진행할 때 열의를 보이는 것은 좋으나 목소리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쉽게 흥분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아, 그러셔?, 그러거나 말거나”라거나 피식거리는 등의 말투나 행동은 “나는 네 말 안 믿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의 기본을 매우 상하게 만드는 언행이다.

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더하여 이야기를 듣는 도중 비록 자신이 아는 얘기가 나와도 아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 유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된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는 말은 상대를 위로한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은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큰 일도 경험했어”처럼 상대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어버리거나 “그깟 고민에 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처럼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타고르, 게오르규도 한국을 칭송했다!!!

옛날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말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죠? 동방의 빛이 된다는 게 바로 열굴에서 빛이 나가는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루마니아에 게오르규라는 소설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 없죠?

구세주 말씀 중에서!

‘비대면’ 시대에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요가 수련으로 내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잡아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강화해서 아프고 쉬시고 빠르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동작을 시작해 보실까요?

효능: 머리를 맑게, 허벅지 안쪽을 자극 혈액순환 도움. 무릎과 하리의 관절을 치유하고, 골반을 바르게 잡아준다. 간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꾸준히 수련하면 간장 기능이 치유된다.

동작①: 앞으로 굽히기 자세-

왼발을 접고 앉아서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 발바닥을 감싼다. 숨을 마시며 상체를 일으킨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②: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양손을

머리 뒤에 얹어 숨을 내쉬며 상체를 오른쪽으로 내린다.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마친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박쥐 자세-

양 다리를 좌우로 펴고 허리를 세워 앉는다. 발끝을 안으로 당긴다. 양 손을 가슴 앞에 두고 숨을 내쉬며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내린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며 긴장을 푼다. 10초 유지 3회.

동작④: 양손으로 무릎 또는 발끝을

잡고 숨을 내쉬며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내린다. 숨을 마시며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며 긴장을 푼다. 10초 유지 3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89회

진사성인(辰巳聖人)이 나오면 유불선(儒佛仙)의 주장이 다 허사(虛事)가 되리라

歌辭總論(가사총론)

人道儒 인도유와 地道佛 지도불이 日落之運 일락지운말은 故고로 洛書夜運昏衢中 낙서야운혼구중에 彷徨霧中失路 방황무중실로로서 儒佛仙 유불선이 各分派 각분파로 相勝相利 상승상리말하지만 天堂 천당인지 極樂 극락인지 彼此一般 피차일반(彼此一般) 다 못가고 평생수도 십년공부 나무야미타불일세 春未夏初四月天 춘말하초사월천을 당코보니 虛事 허사라

인륜 도덕을 말하는 유도와 후천 지도(地道)인 불도는 해가 서산에 지는 운을 맡은 고로 낙서인 밤의 운수를 만나서는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 마치 안개 속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은 나머지 유불선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서로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이겼다고 말하지만 천당인지 극락인지 피차일반(彼此一般) 다 못가고 평생수도 십년공부 나무야미타불일세.(헛수고일세). 춘말하초(春未夏初) 사월천(四月天)을 당코 보니 허사가 되느니라. 춘말(春未)은 진(辰), 하초(夏初)는 사(巳) 즉 진사성인(辰巳聖人)을 말한다. 진사성인이 나오면 기존의 유불선이 주장하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됨을 뜻한다.

儒日知識平生人道 유일지식평생인도 名傳千秋死後論 명전천추사후론과 佛日知識越一步 불일지식월일보로 極樂入國死後論 극락입국사후론과 仙日知識又越步 선일지식월보로

不死永生入國論 불사영생입국론을 三聖各異主張 삼성각이주장하나 儒佛乘運 유불승운되움으로 河上公 하상공의 永生論 영생론을 眞理不覺覺士 진리불각유사들이 異端主張張認 이단주장장인하야 儒生 유생들을가라치니 坐井觀天彼此之間 좌정관천피차시간 脫劫重生 탈겁중생재일소나 富死貧生未運 부사빈생말운에는 上下分滅無智者 상하분멸무지자일세

유도의 지식은 평생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닦아서 이름을 아주 오래도록 남겨야한다고 하는 사후론(死後論)이요, 불도의 지식은 이보다 한 걸음 뛰어넘어 죽은 다음 극락에 들어간다는 사후론(死後論)이요, 선도의 지식은 또 한 걸음 더 뛰어넘어 불사영생하여 지상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론으로 세 성인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유도 불도가 먼저 운을 타고 있음으로 하상공의 영생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교의 선비들이 미처 날뛰고 부인하며 이를 이단이라고 주장하여 유생들을 가르치니 우물 안에 들어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좁은 식견으로 피차 기간에 탈겁중생의 이치를 저들이 어찌 알겠는가?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죽을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살게 되는 말운(末運)에는 사람을 상하(上下)로 구분 지우면 멸망을 받으리니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나라.

一知不二無知者 일지부이무지자야 黑石皓 흑석호를말하지만 海印造化不覺 해인조화불각하고

鷄籠白石 계룡백석되단말가 先天秘訣篤信 선천비결독심마소 鄭僉只 청침지는 虛僉只 허침지세 天下理氣變運法 천하이기변운법이 海印造化 해인조화다있다네 地理諸山十處 지리제산십처에도 天理十勝 천리십승될 수 있고 天理弓元勝地 천리궁궁원승지도 人心惡化無用 인심악화무용으로 弓元福地一處 궁원복지일처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검은 돌이 희어진다고 말하지만 해인의 조화를 깨닫지 못하고서 계룡의 돌이 희어진다고 말하는가? 선천비결을 너무 믿지 마소 정침지는 허침지일세. 천하의 이기(理氣)가 변화하면서 움직이는 법칙이 해인조화에 다 있다네. 지리상의 십처(十處)인 여러 산들도 하늘의 진리에 맞으면 천리(天理) 십승이 될 수 있고 천리 궁궁의 근본이 되는 십승지(十勝地)도 인심이 악화되면 쓸모가 없어지니 궁을 십승의 복지(福地)가 한곳 뿐이던가?

好運 호운이면 多勝地 다승지라 日中之變及於世界 일중지변급이세계 大中小魚其大 大中小魚기대중소어기망으로 全世界大亂蚌鵝之勢 전세계대란방울지세 尙黑者 상흑자는 生養하나니 愛憐如己天心과 애련여기천심화로 人人相對 人人상대하엇어라

호운(好運)이면 여러 곳이 십승지가 될 수 있느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중소(大中小) 국가가 다 망하게 되어 마치 황새가 조개에게 물린 형국이 되리라. 한 덩어리로 뭉치면(尙+黑=黨) 살 수 있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온화하게 상대하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안내



동영상 재생목록 '고서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기는 길

영생의 가치관을 가져라

그렇다면 선생님이 출현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고, 아직도 악이 더 성립하니까?

선생님: 부처님이 계속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가마구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들이 내뿜는 악령의 물질이 이 세상을 자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들을 부처님의 영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영으로 바뀌면 오염과 악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는 피의 원리를 알았다면 피를 썩히지 않는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인색하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건강식품이나 보약이나 사먹어도 피가 썩는고로 아프거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사람의 몸은 아쩔 수 없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몸이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 병원에 가서 큰돈을 들이고 난 후에야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는 식으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술 담배처럼 몸에 안 좋은 것을 몰먹듯이 먹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끊지도 못합니다. 끊는다고 하면서도 자심삼일이라고 며칠을 못 견디고 도로 옛 버릇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선생님: 그들의 가치관이 정말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죽는 몸이라고 생각하니 안 죽는 노력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부처님의 지식이므로 영생하는 존재이다. 영생의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과 가치관을 갖게 되면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다. 영생하려는 사람이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고 될 수 있겠는가? 저절로 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영생의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잘 안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설령 영생이 안 믿어지더라도 기왕 한평생 사는 것 영생의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5695-8971
- 부안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61)744-8007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戸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London : (0208)894-1075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